

### 모술(Mosul) 탈환의 정치경제적 함의

서정민 교수

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

#### 주요 내용

- ☐ (군사작전 현황) 10월 16일,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(IS)가 장악한 모술 탈환작전 개시
- ☐ (배경과 분석)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라크 정부의 결정적 군사작전으로 이라크의 정치 및 경제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
- ☐ (전망과 시사점)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나 모술 탈환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의 재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

 **KIEP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[emerics@kiep.go.kr](mailto:emerics@kiep.go.kr)  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

## 이슈 현황

### ☒ (탈환작전 개시) 이라크 정부, 제2도시 모술 탈환작전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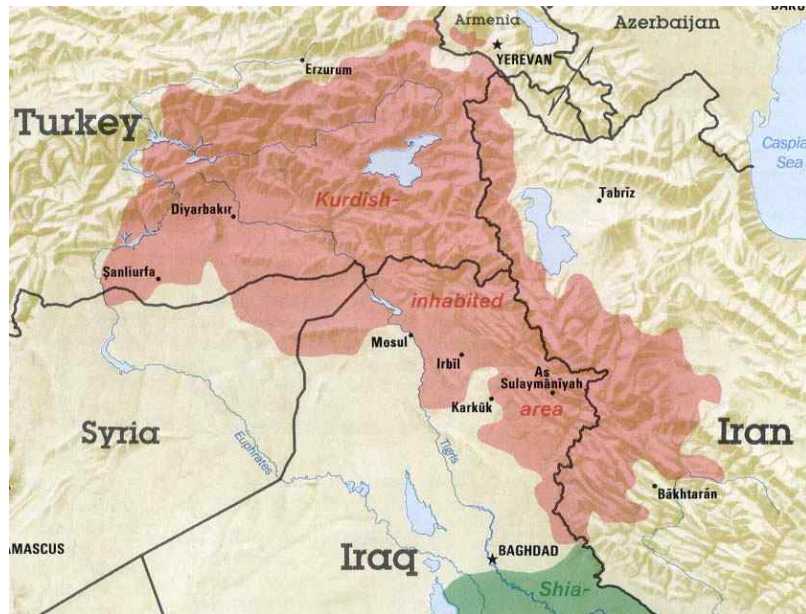
- 하이다르 알-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10월 16일, IS로부터 점령당한 이라크 제2 도시 모술 탈환작전을 공식 선언함.
  - 모술은 2014년 6월 수니파 극단주의 IS가 이슬람국가를 선포하기 직전에 완전히 장악한 이라크 제2 도시로 약 20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내 가장 큰 수니파 도시이나, IS 장악 직후 인구가 150 정도로 축소되었음.
  - 모술 탈환작전은 2011년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이래로 벌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군사작전으로서 이라크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주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고 IS의 보급로 및 탈출로를 차단해왔음.
  - 전문가들은 모술 탈환작전이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인명피해 및 대규모 난민 발생을 예상하고 있음.
- 이라크 정부군과 이라크 쿠르드족 페슈메르가군, 미국 주도 서방 연합군 등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IS 조직원들이 모술 주민들을 전선으로 몰아넣고 있음.
  - 작전 개시 이전부터 IS는 자살폭탄 공격으로 맞서는 한편 이라크군과 연합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지뢰와 탐지가 어렵고 폭발력이 강한 급조폭발물(IED)을 곳곳에 매설하였음.
  - 민간인 인명피해에 민감한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폭격을 저지하고 위해 IS는 민간인들을 도심 곳곳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강제로 배치하면서 저항하고 있음.

### ☒ (다양한 세력의 개입을 불협화음 발생) 각각의 이해를 가진 다양한 세력의 모술 탈환작전 개입, 터키의 경우 수니파의 보호 명분 및 쿠르드의 세력 확장 견제 속내

- 모술 탈환작전에는 이라크 정부군,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, 미군 주도 연합군, 쿠르드 페슈메르가, 터키 등 다양한 세력이 개입하고 있음.
  - 이라크 정부군과 미군 주도 연합군은 IS의 격퇴와 이라크 주권국가 정상화를 위해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나, 쿠르드 세력은 오랫동안 모술이 쿠르드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모술탈환 이후 영유권 주장 가능성 있음.
  - 이라크 정부군과 지상 작전을 펼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수니파에 대한 보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이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  - 국제사회는 모술 탈환 이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20일 파리에서 모술 안정화 등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논의하였음.

- 10월 25일에도 IS 격퇴전에 참가한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호주 등 12개국 국방부 장관이 파리에서 모술 탈환 작전과 향후 IS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.

그림 1. 쿠르드족 거주 지역



자료 : Reddit Mapporn (검색일: 2016. 10. 20.)

[https://www.reddit.com/r/MapPorn/comments/3i3n9f/an\\_ethnic\\_map\\_of\\_europe\\_in\\_1915\\_4500x3665/](https://www.reddit.com/r/MapPorn/comments/3i3n9f/an_ethnic_map_of_europe_in_1915_4500x3665/)

- 터키는 모술 내 수니파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, 실제적으로는 쿠르드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고 있음.
  - 터키군은 이라크의 요청이 없음에도 지난해 말부터 모술 탈환에 나선 반IS 세력을 훈련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라크 군사기지 바시카에 주둔하고 있음.
  - 10월 19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터키가 IS를 모술에서 축출하는 작전을 도와야 할 "역사적 의무"가 있다며 터키군의 군사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이라크의 종파주의 갈등에 개입할 의도는 없지만, 앞으로 모술에서 살아갈 수니파 아랍인과 투르크족(터키인) 간의 미래를 염려한다고 밝힘.
  - 특히 터키는 약 3만 명의 시아파 민병대가 모술을 공격하고 있다며 그들이 모술 내 수니파 주민을 학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  - 하지만 터키의 개입은 터키 동부와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음<sup>1)</sup>.

1) Seth J. Frantzman, "What's Turkey's Strategy in the Mosul Offensive?" *The National Interests* (18 October 2016). (검색일: 2016.10.19.)  
<http://nationalinterest.org/feature/whats-turkeys-strategy-the-mosul-offensive-1809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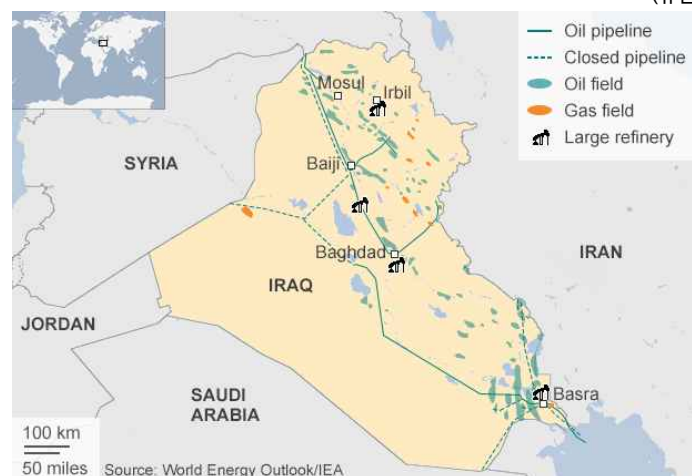
## 2 원인 분석

❏ (모술 탈환의 중요성) 모술은 이라크 제2 도시로 북부 지역의 행정 및 경제의 중심지이며 탈환 시 IS 격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.

- 인구 150만의 모술은 IS의 경제적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자 이라크 내 IS 최대 거점으로 탈환에 성공하면 이라크 내 IS 축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임.
  - 2014년 IS는 이라크의 거대도시 모술을 닷새 만에 장악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국가를 선포했으며 모술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, 갈취, 유전 운용을 통해 준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음.
  - IS의 설립지이자 정신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그다드 서부의 팔루자와 라마디를 상실한 이후 모술까지 상실하게 될 경우 IS는 이라크에서 주요 기반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국가를 선포한 IS의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.
-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주변에 유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탈환 시 이라크 경제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.
  - IS가 장악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북부 지역의 경제는 이라크 경제지표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생산이 저하되었음<sup>2)</sup>.
  - 2년여 IS의 장악 기간 동안 그리고 이어진 크고 작은 전투로 인해 모술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북부의 유전 및 산업 인프라가 황폐화하였음.
  - 모술의 탈환은 이라크 경제 부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의 생산 및 내수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.

그림 2. 이라크 주요 유전 지역

(유전 지역: 연두색)



자료 : BBC (검색일: 2016. 10. 19.) <http://www.bbc.com/news/business-27838264>

2) "UAE Announces \$50m Reconstruction Fund for Mosul," *Gulf News* (2 October 2016). (검색일: 2016. 10. 16.) <http://gulfnews.com/news/uae/government/uae-announces-50m-reconstruction-fund-for-mosul-1.1905756>

**☒ (이라크 안정화 포석) 2003년 이후 국내외적 불안정에 시달려 왔던 이라크 정부는 모술 탈환 작전을 통해 IS 세력을 이라크에서 축출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.**

- 2003년 이후 종파 간 갈등과 테러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 오던 이라크에서 IS 격퇴작전이 성공할 경우 안정화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임.
  -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중앙정부는 수니파가 주축이 된 IS 테러세력을 격퇴함으로써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.
  - 종파 간의 대립으로 인한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정부 기관의 비효율성 및 부패에 시달리던 이라크 정부는 모술 탈환을 계기로 정상적인 국가 및 정부 운용을 추진하고자 함.
- IS가 모술에서 축출될 경우 중앙정부를 주도하는 시아파가 이라크 정국을 장악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치기반을 확대할 것임.
  -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진행되어온 종파 간 갈등에서 시아파가 승리하면서 향후 이라크의 주도권을 이어나갈 것임.
  - 다만 지나치게 수니파를 배제하고 시아파가 전권을 장악하려 할 경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.

**☒ (중동 지역 안정 회복 노력) IS 등장 이후 격퇴작전에 나서고 있는 미군 주도 연합군은 모술 탈환 작전을 통해 이라크 내에서 IS를 축출하고 이어 시리아의 IS 거점도 와해시키려는 단계적 전략을 구축 중임.**

- 2003년 전쟁과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에 성공한 미국에 있어 장기적인 이후 종파 간 갈등과 테러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거듭해 오던 이라크에서 IS 격퇴작전이 성공할 경우 안정화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임.
  - 2003년 전쟁과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에 성공하였지만, 지속적인 정세 불안과 IS에 등장 및 시리아 내전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이라크의 IS 제거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.
  - 모술에 이어 미국은 IS의 정치적 수도인 라카(Raqqah)를 함락시키는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중동 지역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임.
- 모술 탈환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아시아 재균형(Pivot to Asia) 전략을 완결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안정화 필요성이 반영된 작전임.
  -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동 내 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지역으

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이를 위해 이라크 안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.

- 이라크 미군 철수와 중동 내 군사적 개입 자제를 견지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 ‘중재자 역할’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퇴임 전 IS 격퇴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임.

### 3 전망과 시사점

**☒ (IS의 패퇴) 이라크 정부군,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슈메르가, 미국 주도 연합군의 전력이 IS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으로 고려할 때 IS가 모술에서 군사적으로 패퇴할 것으로 예상됨.**

-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및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과 군사작전으로 IS의 장악지역은 2015년 1월에 비교해 이라크에서 이미 28% 감소하였음<sup>3)</sup>.
  - IS는 최근 들어 그간 자금줄이었던 원유 밀매의 주요 거점을 잃었고 전력 공급 통로인 모술 댐을 빼앗기고 나서는 전기마저 부족해 모술 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.
  - 교사 월급을 줄 수 없어 학교가 폐쇄되고 IS 조직원의 봉급도 2014년 월 400달러(약 45만 원)에서 100달러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군사적 대치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되고 이라크 정부군 및 페슈메르가가 포위망을 좁히는 상황에서 IS 지도부가 모술을 포기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.
  - 2015년 10% 감소했던 소매거래증가율은 2016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-5.4%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음.
  -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10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모술 국제회의에 화상 전화를 걸어 “모술 진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”고 강조함<sup>4)</sup>.

**☒ (인도주의적 위기 발생 우려) 모술에는 대규모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교전 속에서 살상되거나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.**

3) IHS Conflict Monitor, “Islamic State Caliphate Shrinks by 16 Percent in 2016,” *IHS Markit* (9 October 2016). (검색일: 2016.10.19.)

<http://press.ihs.com/press-release/aerospace-defense-security/islamic-state-caliphate-shrinks-16-percent-2016-ihs-markit>

4) John Irish and Marine Penner, “Iraqi PM Says Mosul Offensive Going Faster than Expected,” *Reuters* (20 October 2016). (검색일: 2016. 10.20)

<http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mideast-crisis-iraq-abadi-idUSKCN12K0QH?il=0>



- 현재 모술에는 약 150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들의 안전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  - 유엔난민기구(UNHCR)는 탈환 작전 과정에서 이재민 70만에서 100만 명이 발생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함<sup>5)</sup>.
  - 그러나 모술 인근 난민촌들은 5만 1,000명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난민촌 건립과 지원을 위한 필요 기금 2억 8,000만 달러 중 목표액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- 모술 지역 진입 이후 점령군이 IS를 지지하였던 수니파 주민을 학살하거나 보복 행위를 가할 수 있어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.
  - 특히 탈환 작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나서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의 경우 수니파에 대한 반감과 보복심이 강해 점령지역의 수니파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.
  - 실제로 올해 초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서부 팔루자와 라마디 지역을 탈환할 당시에도 IS 지지 수니파 주민 즉결 처형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.
  - 때문에 모술 탈환 이후 안정화 작업을 위해 국제사회는 10월 20일 파리에서 모술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인도주의적 재앙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.

**▶ (테러 증가 우려) IS가 거점에서 물러날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론 중동 및 서방사회에서 테러가 증가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.**

- 미국 주도 연합군의 지원 하에 정부군과 쿠르드 페슈메르가 군대가 모술을 탈환할 경우 유럽계 IS 대원들이 유럽 등 서방국가로 귀환해 동시다발적 테러를 감행할 수 있음.
  - 모술 탈환으로 테러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‘풍선 효과’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방에서 나오고 있음.
  - 특히 미국 주도 다국적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대한 보복 테러의 가능성이 있음.
- IS 대원 혹은 지지 세력은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연합국가 및 주변 중동 국가에서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IS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꾀할 것으로 보임.
  - 10월 21일 IS 지지 세력은 모술 탈환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쿠르드 지역 내 키르쿠크 발전소에 대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해 16명이 사

5) Andreas Needham and Caroline Gluck, “UN Refugee Chief Says Protecting Mosul Civilians Is Key,” *UNHCR* (17 October 2016). (검색일: 2016.10.18.)  
<http://www.unhcr.org/news/latest/2016/10/5804d2f14/un-refugee-chief-says-protecting-mosul-civilians-key.html>

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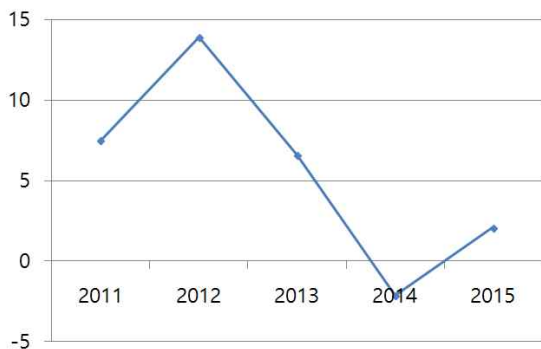
- IS의 대원 모집 루트이자 주요 이동로인 터키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남부 일대에 테러 경계령을 내리고 이라크에서 탈출한 IS 대원의 잠입, 이동 그리고 테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**☐ (이라크 재건 본격화) 이라크 내 IS의 최대 거점 모술이 IS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될 경우 이라크 북부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이라크 재건 사업과 경제활동의 정상화 작업이 진행될 것임.**

- 모술이 탈환되고 이라크 북부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면 석유생산이 증가하고 이라크 석유수송로가 안정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라크의 석유 수출이 가속화될 것임.
  - IS는 모술과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이후 주변 유전지역에서 석유를 생산 및 밀매하여 막대한 재원을 창출하였으며 석유 파이프라인을 공격하여 터키로의 석유 수출을 막아왔음.
  - 모술이 탈환되고 이라크에서 IS가 축출되면 이라크 정부는 모술 주변 유전을 재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정상 가동하여 생산과 수출을 증대할 수 있음.
- IS 축출과 이라크 안정화는 이라크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임.
  -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IS의 급부상과 2014년 저유가 시대 돌입으로 인해 이라크 GDP 성장률은 2012년 13.9%에서 2014년 -2.1%로 급감하였음.
  -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IS의 반란을 막고 장악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2015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9.1%로 2014년 4.9%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.
  - IS 축출이 성공하면 국방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유전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이라크 GDP가 수년 내에 정상적으로 재성장할 것으로 보임.

표 1. 이라크 GDP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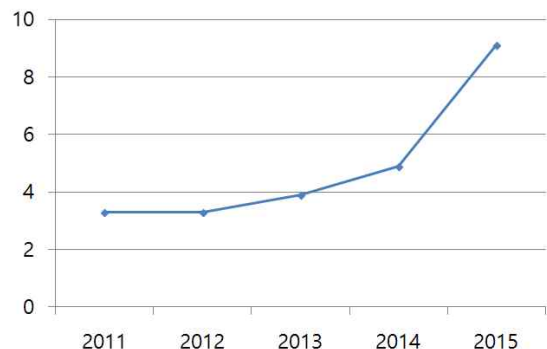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자료 : The World Bank

표 2. 이라크 국방비 지출 (% of GDP)

(단위: %)



자료 : knoema (검색일: 2016. 10. 18.)



- 모술 탈환 작전이 성공하고 이라크 북부가 안정화하게 되면 재건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건설 및 플랜트 발주, 중간재 및 소비재 수입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이라크 수니파의 일부가 IS를 지지한 배경에는 수니파 지역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모술 탈환 직후 이라크 중앙정부는 수니파 주민의 불만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우리 기업은 모술 탈환 작전 성공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에 나서야 함.
  - 모술과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북부의 안정화가 달성되면 그동안 막혀왔던 소비재 수요가 폭등할 것이며 보임으로 다양한 소비재 상품 수출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.
  - 특히 이라크 북부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뜨거운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냉난방 장비 및 의복, 그리고 재건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중간재 및 소비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 **EMERiCs**

#### 출처

World Bank, Reuters, UNHCR, IHS 및 보도자료